

뷰티업계, 비건·친환경 화장품으로 ‘제로 열풍’ 올라탄다

LG생활건강 ‘비온드’
울릉도 식물 추출 크림 2종
아이소이
쿠션 등 제품에도 비건 인증
CJ올리브영
‘비건뷰티존’ 따로 만들 계획



LG생활건강 ‘비온드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



아이소이 ‘스킨케어 비건쿠션’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로 열풍이 뷰티 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0칼로리, 저당을 선호하는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 트렌드가 먹는 것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확산되며 유해 의심 성분·동물성 원료 실험 제로(0) 상품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LG생활건강은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는 지난 2일 울릉도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과 릴리프 시카

콤플렉스를 함유한 포뮬러로 수분감과 진정 효과가 탁월하다. 24시간 동안 피부 결보습과 속보습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눈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마쳐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으며,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용기를 적용해 환경까지 신경 썼다.

자연유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는 스킨케어뿐 아니라 파운데이션, 쿠션 등의 메이크업 제품에도 비건 인증을 받고 있다. 아이소이 비건 메이크업 라인의 대표 제품인 ‘스킨케어 비건 쿠션’은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자연유래 성분 쿠션으로 미백 기능성과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까지 3중 기능성 제품이다. 한국비건인증원의 인증을 받았으

며 피부 자극 테스트 저자극 관점으로 자극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판정도 받았다.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페’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 제품이자 베스트셀러인 ‘어센틱 립밤’은 국내 최초 비건 인증을 받은 립스틱이다. 지난달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의 달달한 향을 담은 어센틱 립밤의 한정판 세트

‘베어 하트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2023년 시장을 운영할 전략 키워드로 ‘비건 뷰티’를 선정하고 주요 매장에 ‘비건뷰티존’을 따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는 2023 뷰티 트렌드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성분과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배제하고 친환경 포장을 실천하는 어웨어뷰티(AWARE BEAUTY)를 제시한 바 있다. 앱 내 비건, 환경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대비 3.6배나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헬시플레저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도 비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재들 성장에 LG가 함께 할 수 있기를”

‘LG테크콘퍼런스’ 개최
구광모 회장 등 계열사 경영진 참석
국내 이공계 R&D 인재들 초청
LG 기술 혁신 현황과 비전 소개



구광모 LG 회장이 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기술 인재들을 만나 함께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찾자고 당부했다. LG는 16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테크콘퍼런스’를 개최했다. LG테크콘퍼런스는 국내 이공계 R&D 인재들을 초청해 LG 기술 혁신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다. 2012년 처음 시작해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총출동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에는 슬로건을 ‘파인드 유어셀프, 파인드 유어 퓨처’로 정하고 인재들이 LG 기술과 회사를 만나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찾기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구 회장은 다음날 일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테이בל을 앞두고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LG AI 연구원의 AI 휴먼 팀 소개를 받으며 행사 문을 열었다.

위기를 연출했다. 구 회장은 틈타 꿈과 미래, 사람들 키워드로 그린 그림과 함께 혁신과 인재 향에 LG 원칙을 소개하며 인재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구 회장은 “LG의 꿈은 사람들의 삶에 행복한 경험을 드리고 상상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모두가 미소짓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꿈과 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큰 열매로 맺어지길 항상 응원하며, 그 여정에 LG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LG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등 총 26개 기술 분야의 테크 세션을 마련하고, 참석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LG의 우수 기술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테크 세션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GenZ(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출생한 세대)인 점을 감안해 참가자 본인이 듣고 싶은 기술을 사전에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기아 국내 3개 대학과 에너지 연구 협력

전기차 에너지 분석 기술 등 과제 수행



박정국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사장(왼쪽)이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우수 대학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전기차 에너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중앙대학교·홍익대학교 및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 연구실’을 설립하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은 eP(전기 파워트레인) 연구그룹과 열에너지 연구그룹, 에너지 플로우 분석그룹으로 구성된다. 각 연구그룹은 전기차 에너지 분석 기술과 배터리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인프라를 공유한다. 그리고 전공 분야에 기반한 단일 주제를 연구하는 테마 연구 과제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한다. eP 연구그룹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민경덕 교수팀과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박성진 교수팀이 맡아 전기

차 배터리 열관리 개발 프로세스 및 배터리 액침 냉각 시스템을 연구한다. 열에너지 연구그룹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민수 교수팀과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김민성 교수팀이 맡는다. 냉매를 이용한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 연구와 히트펌프 물리 해석 모델 및 부품 모듈화 개발을 담당한다. 에너지 플로우 분석그룹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송한호 교수팀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에너지 제어 전략 및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신세계百, 60년만에 첫 노조 설립... 유통업계, ‘당연한 일’

가입자 대다수 30대와 40대
60년 만에 신세계백화점에 평균 연령 30대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 측은 내부 직원의 노조 가입 독려와 사측의 불투명한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활동을 첫 번째 행동과제로 삼았다. 16일 신세계노조는 신세계백화점 내 첫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조의 정식 출범이 향후 신세계의 경영 활동과 타 계열사 내 노조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오후 김영환 신세계 노조 위원

장과 조합원 7명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 섬유·유통노동조합에 소속했으며, 16일 현재 총 2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가입자 대다수는 30대와 40대다.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일방통행식 임금협상 중단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개편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메트로 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달 17일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 소식을 전한 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수

가 200여 명”이라며 “첫 번째로 염두에 둔 안전은 인사 제도 개편과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신세계백화점 노조 출범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향후 노조 활동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기성 노조와 달리 ‘MZ세대’로 구성된 신생 노조들이 주로 정례 파업과 정치적 투쟁보다는 기업에 근로자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협상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과거 제조업, 50대 중심 노조의 활동과는 결이 다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전동화 모델 U100 차명 ‘토레스 EVX’ 확정

쌍용자동차가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전동화 모델인 U100의 차명을 확정하고 실차 이미지와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U100’으로 개발해온 차명을 ‘토레스 EVX’로 확정하고, 출시에 앞서 내·외관 이미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 EVX의 차명은 정통 SUV를 추구하는 토레스의 강인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에 전기자동차를 의미하는 EV와 SUV 본연의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익스트림의 X를 더한 것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 넘는 모험과 도전정신의 가치를 담아 브랜딩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차명에 담은 브랜드 목표와 함께 토레스 EVX의 내·외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쌍용차의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모델의 스타일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수평형의 도트 스타일의 면발광 LED 주간주행등(DRL)을 적용하여 전기차만의 옛지없는 차별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